

“이단 대처 위해 성경과 바른 교리 정확히 가르쳐야”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한림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와 한국기독교한림원이 최근 서울신대 존도 마스홀에서 ‘한국교회와 이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은선 박사(안양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학술대회에는 발표와 논평, 그리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체계·실제적 이단 퇴치운동 전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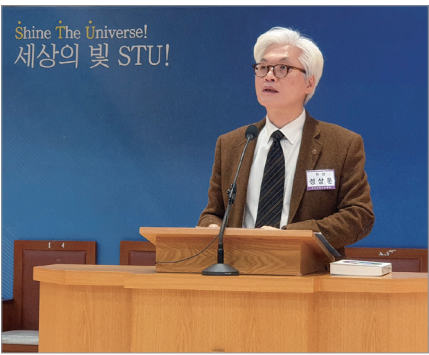
본격 발표에 앞서 정상운 박사(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 성경대 명예총장)가 개회사를 전했다. 정 박사는 “그 동안 많이 성장한 한국교회 못지 않게 이단사이비도 공존하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도 고고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적극적 포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박사는 “한국교회에 이단에 대한 위기의식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며 “교파와 교단을 넘어 서로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이단 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이단에 대처할 한국교회 연합 전문기관의 설립과 신학자 및 신학교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평신도를 대상으로 이단강화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단, 육체 아닌 영원한 생명 훼손”

이후 발표에서 목장교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는 “정통 교회가 성장 문화와 정체를 겪는 동안, 물론교·여호와의 증인·선전지 등 이단 종파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론교가



한국기독교한림원 원장인 정상운 박사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1830년 6명에서 출발해 현재 1,7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와, 국내에서도 하 나님의교회와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현상을 언급하며 “이단 팽창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정통 신앙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목 박사는 또 이단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 일부에서는 이단을 ‘신학적 회생양’으로 보고, 정통 교회를 권력의 산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통에 대한 권위주의적 거부감이 이단을 오히려 해방적 대안으로 미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단에 대처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지는 흐름까지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목 박사는 “이단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내부에서 신앙을 침식한다”며, 기독교가 이단에 단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단 신앙의 특징으로 스탄지 특정한 때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기독교의 본질적 정체성과 상충하는 가르침, 이로 인한 기독교 신앙에 파괴적 영향 △새로운 교리 주장 △극단적 신앙을 꼽았다.

목 박사는 또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교



패널 발표자들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일 경우 오히려 이단이 발생하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통의 화석화가 이단을 자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켈리의 연구를 인용해 “전통을 유지하려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다시 진술하는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단은 “메시지 자체를 바꾸는 변혁의 길”을 걷기 때문에 성경과 충돌하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분석했다.

다만 목 박사는 이단 판정의 신중함도 강조했다. 그는 교리사적 관점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예반스, 곤잘레스, 페리칸 같은 교회사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정통과 이단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았고, 선험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모두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 ‘모든 오류가 곧 이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이단 판결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교권 방어에서 비롯된 사례도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도적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이단에 단호해야 하지만,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교리사 연구를 통해 과거의 논쟁을 살피는 것이 이단의 실체를 이해하고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

라고 결론지었다.

◆“성경 근거한 사도적 바른 가르침을”

이어 ‘이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을 고찰한 이승구 박사(한신대 남송 석좌교수)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성도들이 성경과 바른 성경적 교리에 익숙하게 되면 주변에 이단적 가르침이 나타났을 때 최소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과거의 전형적 이단들과 현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이단들 자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며 “목회자는 이단들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성도에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이단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순결하고 순전한 교회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갈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사도적인 바른 가르침을 전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개인과 세상이 살아날 것”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한국기독교한림원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라고 강조했다.

◆이단 대처의 딜레마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는 구체적인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역사와 최근 이단 동향 및 대처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단 대처에 있어 느끼게 되는 ‘딜레마’를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양의 옷을 입고 합법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이단들의 광폭 행보를 저지할 만한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비성경적 이단인 것은 분명하나, 현실과 거리 청소 등의 이타적인 모습으로 포장된 이들에 대처하려면,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로 인해 사회적 비난에 노출된 교회의 모습이 떠올라 왠지 꺼림칙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사전 예방’ 기능을 가진 교회의 무기력한 이단 대처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이단 규정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교육에 집중해야”

끝으로 종합논평에 나선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단문제를 공정하게 다루며, 건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4가지로 정리해 제안했다.

①이단논쟁은 교리에 관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현재 세계기독교를 근본부터 흐든 것은 바로 기독교 내부에서

나오는 자유주의신학 ③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단문제 연구 ④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가를 분명히 하고 기독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주 마련

박 박사는 “수많은 이단의 등장은 교회가 건전한 신학교육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이단을 규정하는 일 못지않게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가 사라지고, 비록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박응규 박사(총무, 아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드린 개회 예배에선 이용호 박사(서울신대 부총장)가 기도했고,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후 황덕형 박사(서울신대 총장)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8-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합심기도 순서에선 안명준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임성택 박사(전 강서대 총장)가 ‘한국교회와 동상에 확산 저지를 위해, 이광희 박사(평택대 명예교수)가 ‘서울신학대를 위해, 이억주 박사(전 칼빈대 교수)가 ‘한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오덕교 박사(햇빛트리네트 신학대학원대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진영 기자

현대약품 앞 제6차 ‘먹는 낙태약 수입 저지’ 규탄집회 열려

생명운동연합·태어연, 낙태약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현대약품의 먹는 낙태약 수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학계·청년 단체들이 최근 서울 강남구 현대약품 본사 앞에서 제6차 규탄집회를 열고, 회사 측의 즉각적 철회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생명운동연합(대표 김길수 목사)과 태

어연(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이 공동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의학 전문가, 생명윤리학자, 대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낙태약물의 위험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집회에는 제양규 교수(태어연 운영위

원장), 인천가톨릭대학교 김영아 교수(프로라이프 대학생회 지도교수), 인천가톨릭대학교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청년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낙태약물의 의학·사회적 위험성과 생명윤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청년 세대와 학계가 바라보는 생명 가치 회복의 필요성을 전했다.

현장에서 카일생명존중운동대(대표 오연

희)은 특별 퍼포먼스를 통해 낙태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오연희 대표는 기업 이념과 생명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약품에 낙태약물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현대약품이 말하는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에는 낙태약으로 고통받을 여성과 약물로 생명을 잃게



‘먹는 낙태약 수입 저지’ 규탄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생명운동연합

되는 태아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면 수입 추진을 즉

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명운동연합과 태어연은 먹는 낙태약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출혈, 패혈증, 자궁손상, 불안전 낙태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충분한 안전망 없이 수입사용이 논의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두 단체는 현대약품이 수입 추진 철회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매주 동일 장소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또 법적·정책적 대응과 연대 활동을 확대, 태아 생명 보호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2025-2026
강원 방문이 해
철원
CheorWon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담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햇빛전망대